

2017-34

「경제」

중남미

# 중남미 국가들 석유가격 인상과 에너지 보조금 삭감 전망

김영철 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 주요내용

- 중남미 국가들이 줄줄이 연료 보조금(Fuel Subsidies)을 줄이면서 석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음.
- 브라질은 2016년 10월 이후 다섯 차례 가격 조정, 멕시코는 2017년 1월에만 20% 인상, 아르헨티나도 압축천연가스 가격 인상
-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에너지 보조금은 삭감될 것이며, 석유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 협약 합의 사항 준수로 에너지 시장 변화 예고

## 1. 이슈 현황

▶ **중남미 국가들이 줄줄이 연료 보조금(Fuel Subsidies)을 줄이면서 석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음.**

□ 2017년 1월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보조금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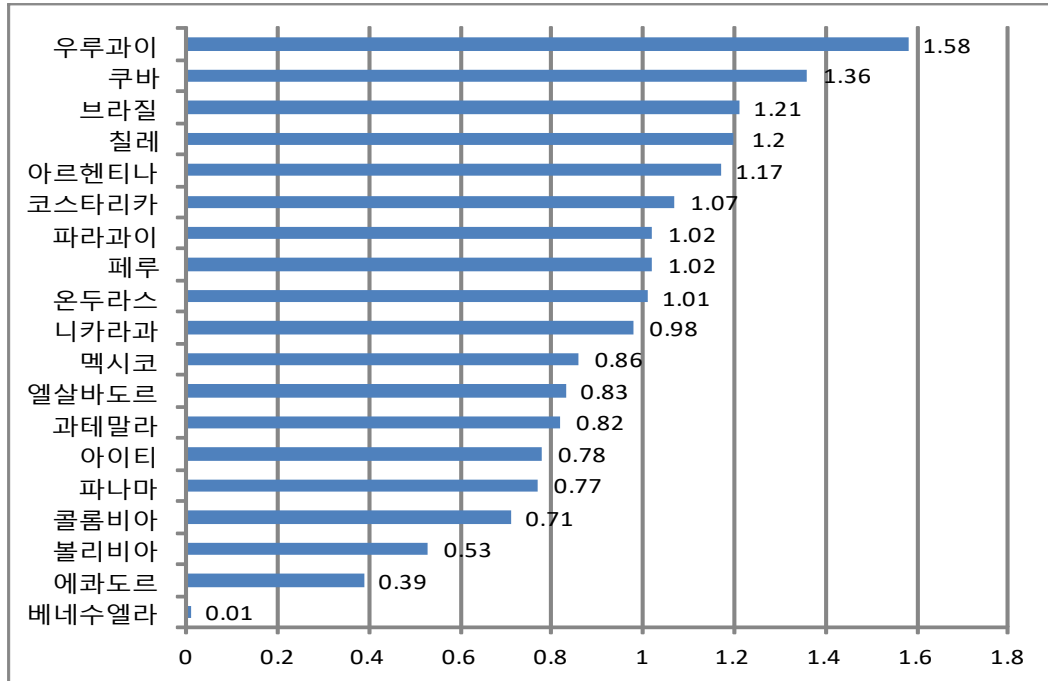
- 원자재 경제 붐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음.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콜롬비아도 보조금 삭감에 동참하고 있음.
- 멕시코에서는 보조금 삭감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은 유가 인상과 더불어 페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의 지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브라질의 국영기업인 Petrobras와 아르헨티나의 YPF는 이전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와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정부 보조금 활용.
- 콜롬비아는 이미 2008년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부터 에너지 보조금 삭감 시작

□ 중남미 국가들이 유가 인상 현황

- 멕시코는 1월에 20%를 인상했으며, 올해 안에 연료 보조금을 완전히 삭감할 계획.
  - 멕시코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시위 확대
  - 빼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의 지지도가 12%에 불과하나, 여전히 2월 4일 또다시 석유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현재 1리터에 1센트이지만, 20년 만에 석유 가격을 인상했음.
- 전세계 가솔린 가격은 1리터당 평균 1.02 달러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세계 평균가를 상회하고 있고, 멕시코는 0.86달러로 아직 세계 평균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중남미 국가별 가솔린 가격표

2017년 1월 30일 기준(단위: \$)



자료 : 전세계 가솔린 가격표 편집 [http://www.globalpetrolprices.com/gasoline\\_prices/](http://www.globalpetrolprices.com/gasoline_prices/) (검색일: 2017. 2. 1.).

□ 중남미 국가들이 연료 보조금을 활용하는 이유

-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좌파 정부들이 공적인 자원 배분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 물가 안정화 메카니즘으로 활용됨.
-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 유가를 통제해 왔음.

## 2. 원인과 분석

▶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 및 에너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을 통해서 자원 배분,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브라질은 2016년 10월 이후 다섯 차례 가격 조정, 멕시코는 2017년 1월에만 20% 인상, 아르헨티나도 압축천연가스 가격을 인상함.

□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할 때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해 왔으나 재정적인 부담이 누적됨.

- 그러나 현재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보조금 재원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제 석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연료 보조금을 삭감할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 □ 멕시코의 유가 인상 원인

- 정부 유가 통제 중단: 정부 일괄 통제 방식이었던 멕시코 기름값은 2017년 1월 1일 약 20% 인상 후 2월 3일까지 적용되며, 2월 18일부터는 일 단위 가격 변화 적용.
- 유가시장 단계별 자유화: 전국 단일 유가였던 시스템은 2017년 초 멕시코 북부지역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남쪽 유카탄 반도까지 가격 시장 자율화 시작.
- 멕시코 정부는 유가 인상과 시장 자율화를 "정상화(Normalidad)"라고 주장하며 1) 가격 정상화 2) 세계유가 반영 3) 관련 비용(내륙수송 비용 등) 적용의 이유

#### □ 국제 석유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축소

-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정부가 재정적자 개선과 국가 신용도 회복을 위해 긴축 재정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2011-2013년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보조금은 GDP의 1.8%, 이 중 연료 보조금은 GDP의 1%, 전력보조금은 0.8%
- 에너지 보조금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많았음.
- 아르헨티나 마끄리(Mauricio Macri) 대통령 취임 이후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경쟁력을 회복했음. 그동안 가솔린 가격이 8% 인상되었지만, YPF의 주식은 아래 표에서 보는 같이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임.

그림 2. 2015년 이후 YFP의 주식 변동

(단위: %)



자료 :Latin America Abandons Fuel Subsidies in Shift to Austerity (검색일: 2017. 2. 1.).

□ 기업 및 시장의 신용도 회복 및 경쟁력 개선

- 브라질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목적으로 280억 달러(불룸버그는 400억 달러로 추정)를 보조
- 국가개입에 따라 정책을 시행
  - 글로벌 연료 가격 유지를 위해 석유 가격 인상, 환율등락과 위기관리를 위해 조정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였음.
  - 뻬트로브라스의 뻬드루 빠렝씨(Pedro Parente) 신임 사장은 가격 책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새로 도입한 가격 책정 시스템에 따라 2016년 10월 이후 5차례 가격 인상.
  - 뻬트로브라스는 30일 단위로 환율과 원유 배럴당 가격을 고려해서 시장가격을 평가할 계획임.
  - 지난 1월 26일 헤알화(Real)의 평가절상, 국내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시장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가솔린은 0.4%, 디젤은 2.6% 인하하였음.
- 뻬트로브라스가 도입한 새로운 가격책정이 대규모 부정부패와 사업성 없는 정유 사업에 뛰어들어 발생한 손실로 상처 입은 명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페메르 대통령의 친시장 정책으로 시장 가격 변동에 연동된 시스템 적용하기에 용이하게 작용함.

□ 제22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의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계획 준수

- 2016년 11월 마라케시(Marrakech)에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 중남미 다수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 중남미 국가들은 2018년도까지 세부규칙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분야별 작업일정에 합의하고, 기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을 채택
- 이에 따라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조금 확대에 에너지 정책 전환.

### 3. 전망과 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에너지 보조금은 삭감될 것이며, 석유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 협약 합의 사항 준수로 에너지 시장 변화 예고

□ 2018년까지 석유 가격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2018년까지 가격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멕시코는 유가통제 철폐 및 자유화로 인해 2017년 유가 인상은 2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도 석유 가격 책정 방법을 변경하면서 국제 유가 변동과 연동시키고 있어 당분간 석유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 가격 변화 수용

- 중남미 국가들이 소득 분배 정책으로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긴축 재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보조금은 삭감될 것으로 보임.
- 중남미 정부들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자원 분배를 위해 제공했던 연료 보조금들은 시장 친화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삭감하는 경향성을 나타냄.

□ 제22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의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계획 준수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탈퇴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은 협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짐.
- 2017년 중남미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연료 보조금 삭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MERiCs**

**출처**

- .전세계 가솔린 가격표 편집 [http://www.globalpetrolprices.com/gasoline\\_prices/](http://www.globalpetrolprices.com/gasoline_prices/)(검색일: 2017. 2. 1.).
- "Latin American Governments Cool on Fuel Subsidies",  
<https://www.wsj.com/articles/latin-american-governments-cool-on-fuel-subsidies-1485781202>(검색일: 2017. 2. 1.).
- "Latin America Abandons Fuel Subsidies in Shift to Austerit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1-27/latin-america-killing-fuel-subsidies-in-shift-to-austerity>(검색일: 2017. 2. 1.).

💡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